

신진 북한연구자들의 관점: 연구의 어려움과 발전방향

남북한 분단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을 주제로 연구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실로도 나타난다. 게다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취약한 자료 접근성, 북한연구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은 북한 연구자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연구하고자 하는 신진 연구자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북한경제를 주제로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네 분을 모시고 북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연구하는 데 있어 고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23년 10월 11일(수) 오후 3시 30분, CEO SUITE

사회

남진욱(KDI)

토론

윤세라(동국대), 강성현 · 임사라(북한대학원대), 오윤정(이화여대)



남진욱: 우선 학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DI 북한경제 신진연구자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KDI 북한경제리뷰협의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해 왔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바로 현재 북한학을 주제로 학위를 준비하는 대학원생 분들을 모시고 북한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과 북한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북한학 학계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학부 때부터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다. 1학년 때 사회과학 기초 학문의 개론을 듣고 전공을 선택했는데, 북한학은 당위적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점이 다른 학문보다 현실에 더욱 맞닿아 있다고 느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 전에는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스스로 그 이유를 질문한 적이 없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기에 막연히 떠올려지는 장면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고민한 적이 없었다. 북한학 수업에서는 그런 질문이 던져졌고,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더 고민해보고 싶은 마음에 북한학을 선택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전공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당시 많은 채용공고에서 북한학 석사학위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일반 기업에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사회과학연구(SSK)사업인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탈분단의 사회동학’이 시작되면서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석사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시장 관계’로, 북한 시장화를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 관계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했다. 논문을 쓰던 201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시장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시장화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내 나름대로 이해해보고 싶었다. 견고해 보이는 문제를 낯설게 바라보게 했던 탈분단 연구사업도 거름이 되었다.

현재는 북한의 지방경제를 하고 있다. 북한 지방경제라는 창을 통해 북한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체제 속에서 지방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장화 과정에서 지방경제가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현재 지방경제의 역할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방경제와 관련한 정보 접근의 한계로 현재는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지방경제를 중심으로 연구 중이다.

강성현: 남북분단 문제와 북한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군복무 당시의 경험 때문이다. 대학 학부생 때 국사학을 전공하면서 문화재 발굴 경력을 쌓고 있던 차에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 수습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전국의 6·25전쟁 전투지를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전쟁의 상흔을 직접 보고 전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60여 년 이상을 수습되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던 국군, UN군, 북한군, 중공군들의 유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야 했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남북분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북한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접하였고, 그중 북한 시장화 현상과 관련된 지도교수님의 저서를 보고 북한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후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서 2016년에 북한의 민간에너지 시장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민간의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더 갖추기 위해 2022년 박사과정에 진학하였다.

임사라: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북한·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정치외교학 전공을 선택하였으나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경험들을 쌓게 되었다. 퇴사 후 우연한 기회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한 NPO 대표분의 개인 작업을 도울 일이 생기며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해당 지역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아동이 다수 속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접한 이야기들은 당시 가졌던 개인적인 고민과 과거의 결심이 맞게 하였고, 그해에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진학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학교에서의 경험과 석사·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의 영향으로 북한경제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각각 추진된 경제개혁 조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논문을 작성하였다. 현재는 박사과정을 막 수료하여 학위논문 작성 준비 중에 있으며, 재산을 논문의 소재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북한 당국이 소유권에서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재산권적 측면에서는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연구의 재해석과 가능하면 중국 사례를 포함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의 북한 변화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오윤정: 글을 쓰는 일을 하다가 몇 번의 우연과 인연이 북한학 공부의 기회를 만들어 줬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이제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에 임하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와 관계, 그리고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관심이 많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푸는 방법은 결국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든지, 국제사회를 북한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상호의존성, 무역과 개방 등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

남진욱: 북한의 지방경제, 시장화,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 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계신 것 같다. 사실 북한경제는 연구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특히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폐쇄성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을 연구해 오며 많은 학문적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개인적인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자료와 해석의 문제이다. 이는 모든 연구자가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북한경제는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다. 수치나 통계 외에도 어떤 자료를 통해 고민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늘 찾아 헤매는 것 같다. 주제보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여부가 연구 주제를 좌우하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KDI에서 다양한 데이터원을 활용한 연구를 모아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료가 준비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해석해야 하는지도 조심스럽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식 문헌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 가운데 균형을 잘 잡아가며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강성현: 모든 북한 연구자들이 꼽는 북한 연구의 어려움 중 첫 번째는 단연 자료의 부족일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북한경제는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거의 없고, 존재하는 것마저도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보니 선택 또는 표본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일부 등 정부부처, 기관이 북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는 알지 못하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등은 북한 자료 수집을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경제연구』 등 북한의 공간(公刊)문헌이 상당 기간 입수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고 수집이 어렵다 보니 학생으로서 연구 주제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연구방법론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텍스트마이닝이나 인공위성 데이터 등 새로운 분석 방법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등장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 문제로 북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가 북한 자료를 열람, 대출하려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특수자료실을 이용해야 한다. 그 또한 열람 권한 획득, 열람 신청, 복사내역 작성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서울에만 편중되어 있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이 자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 중 하나다.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임사라: 북한학을 하는 많은 분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처럼 자료의 부족함이 가장 큰 학문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이라 할지라도 자료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통계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구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활용하곤 하나 인간의 기억이 불완전하므로 경험을 온전히 전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북한 연구의 환경은 북한 연구의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연구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에 빠지게 한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떠오를 때도 있다.

다른 한 가지 어려움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북한경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경제학적 사고라든지 연구 방법, 자료의 해석 등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먼 걱정일 수는 있겠지만, 솔직하게는 북한이 개방되고 북한 관련 자료에의 접근성이 확대되었을 때 경제학 전공자와 비교하여 과연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지, 어떤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도 하게 된다. 아직 논문도 완성하지 않은 박사과정생에게 주제넘은 고민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북한학’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오윤정: 먼저 북한 노동신문과 경제연구를 보려면 북한학을 처음 시작한 7~8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서초동 북한자료센터에 가서 복사기(혹은 컴퓨터)로 일일이 인쇄를 해야 한다. 안 그래도 적고 부족한 북한 자료인데, 북한학 연구학자들이 입수된 북한 문헌만이라도 지금보다 수월하게 접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구 환경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북한학 연구도 영향을 받았다. 인공위성 야간조도,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던 데이터와 방법론을 북한 연구에 적용하는 등의 시도가 활발해진 반면, 그동안 많이 해왔던 남북 교류협력이나

통일, 평화 등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학계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 마치 유행 지난 장르의 노래를 혼자 부르고 있는 기분인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계속 공부해도 되는 걸까 불안하기도 하다.

남진욱: 여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같이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에 대해 공감도 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신진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성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구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연구하고 싶거나 바라는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박사학위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요즘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개인적인 포부를 갖기 어려운 환경이다.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고, 북한 연구 관련 채용도 많지 않다. 아주 현실적인 계획으로 졸업할 즈음에 나오는 채용공고는 모두 열심히 지원하는 것이다. 가릴 것 없이 일단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많다. 최근 북한 당국이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어져 온 지방경제 전략은 지방 간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경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해보고 싶다. 또한 각 연구기관에서 구축한 DB자료에 지방경제 차원의 다양한 레이어를 입혀보고 싶다.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이 구축한 북한 산업·기업분석 DB는 현재 지역별로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지역 내 지방경제 소속 기업에 대한 정보는 부분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한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여러 자료에서 북한의 시, 군 차원까지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확장해보고 싶기도 하다.

북한학을 공부하며 연구방법론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북한학은 다른 학문보다도 새로운 연구방법을 꾸준히 접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학 학도들이 다양한 연구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북한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자리 등도 북한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강성현: 우선 박사과정을 무사히 수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다. 현재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는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공장, 기업소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공장, 기업소 간 경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뤄지는가?’이다. 현재까지는 관심 정도만 갖고 있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학 학도로서 바라는 점은 앞서 언급했던 북한학 연구의 어려움 등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선후배 연구자 간 접촉이 보다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또한 연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북한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최근 노동신문 등 북한 공간(公刊)문헌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연구목적에 한해서라도 연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현재 국가보안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에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지금 많은 대학에서 북한 관련 학과들이 대부분 통폐합된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사정은 대학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리고 북한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민간에서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아 취업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북한학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것 같다. 정부가 북한 연구의 주된 수요자 중 하나인 만큼, 신진 연구자 발굴과 지원에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북한학 관련 학술회의나 모임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활발해졌는데, 이후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집합이 제한 또는 금지되었을 때 줌(Zoom)이나 유튜브(Youtube) 등의 매체를 통해 영상으로 송출하는 방식이 활발해졌는데 개인적으로 잘 활용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나 최근의 연구 기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선배나 동료들의 연구성과를 활자 형태로만 접하지 않고, 영상으로나마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일방적이기는 하나, 연구자 간 접촉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임사라: 개인적으로는 경제사회학에 관한 관심이 큰 편이라 향후 관련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 또한 과거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진행하며 북한 내 미취업 청년,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관심 있게 접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다루어보고 싶은 주제다. 그러나 하고 싶은 연구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라는 선배 연구자분들의 조언에 따라 일단은 학위논문을 잘 준비하여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의 계획으로 삼고 있다.

북한학 학도로서 바라는 점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근로활동을 통한 장학금

지원도 감사한 일이지만, 학술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이 더욱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선배 연구자분들과 함께하는 공동 작업을 통해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네트워킹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후속 세대 연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속 세대의 직접적 양성과 더불어 세대 간·세대 내 긴밀한 교류를 이뤄낼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오윤정: 지금은 학위 논문 외에 어떠한 것을 계획하는 것은 욕심이다. 하지만 바람을 이야기해 보라면, ‘북한 인구’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면 꼭 참여해보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계나 계량, 텍스트마이닝 분석 등 방법론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방법론을 배우고 북한경제 데이터의 분석과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보고 싶다.

이공계 분야에서 공부하는 지인들은 학위 과정 중에 연구에 참여도 하고, 학회에서 필수로 연구 주제를 발표해야 하는 등의 기회가 다양하게 있다고 들었다. 북한 신진 연구자가 선배 연구자들 앞에서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조언을 듣거나 연구에 참여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것보다 고맙고 확실한 성장의 기회는 없을 것 같다. 이번 KDI가 주선한 북한경제 신진 연구자들 모임이 세대끼리의 연구 교류를 넘어서 선·후배 연구자들과의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진욱: 말씀 감사드린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앞으로 북한경제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렵고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어 줘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며 금번 북한경제리뷰 협의회를 마치도록 하겠다.